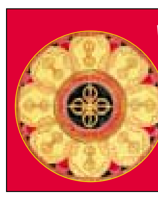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아름다운 삶·사람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새싹포교 · 봉사활동 앞장

이/남/숙 씨

15년 간 어린이 법회에 온힘
좋은 가르침 위해 수행 철저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
세상과 나 밝히는 등불될 터

법회에 참석한 대여섯 살 아이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 큰 키에 약간 마른 몸집, 40살도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사람에게 아이들은 세대차이도 느끼지 않는지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밝게 웃는다. 포교사이자 어린이 법회 교사인 이남숙(법명 희명화, 52) 씨. 그는 지난 15년 동안 어린이 포교에 힘써 온 '어린이 법회 전문가'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던 이 씨는 20여 년 전 결혼과 출산 때문에 교편을 놓았다. 이후 속셈학원을 운영하던 그는 눈망울 맑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느꼈다. 그래서 어린이 법회를 맡기로 결심했다. "한 번 마음먹자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평소 다니던 사천왕사의 어린이 법회를 제가 맡겠다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강의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1년 동안 어린이 포교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 돈암포교원 레크리에이션 강습을 빠지지 않고 다녀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불교연구원에서는 찬불가를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교회나 성당에서 나오는 어린이용 교재를 구해 법회용 책자와 비교해가며 나름대로 교재도 만들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덤벼들기에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찰이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비나 교재비 등 최소한의 지원마저 꺼리기 일쑤였다. 어린이 불서를 보시 받기 위해 이곳저곳 직접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어린이 법회 교사 중 유일한 '아줌마'였던 그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에 돌아오면 빨랫감과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이 "엄마는 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쁘냐"고 투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한 일인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었다. 교사 연수와 캠프를 다녀오기 전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저에게 '법회를 진행하려면 많이 배워야 할 것 아니냐'며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이 너무도 고마워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습니다."

법회와 봉사 현장에 서면

행복지수 '최고'

"너희들 절에는 왜 왔니?"
"법회 하려고요!"
"법회가 뭔데?"
"…"
"법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지. 너희도 부처님이 되려고."
"선생님, 법회 안오면 부처님이 벌주나요?"
"아~니. 부처님은 절대로 벌주지 않으셔.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법회에 못 나온 친구들을 걱정하실 거야. 친구들이 어디가 아파서 못 왔나? 하고 말이야."

그는 올해도 변함없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선사에서 열린 여름불교학교에서 10여 년 전 어린이 법회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가 어엿한 교사가 된 모습을 보게 됐다. "코흘리개 꼬마 아이가 사회의 어엿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이다"는 그는 "하지만 이번 법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일선에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체력도 부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서울 · 경기 포교사단 대학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북서울 중학교 불교반과 산업대 불교동아리를 매달 찾아가 학생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또 신수회(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모임) 회장도 맡아 전국에 흩어져있는 60여명의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라 조금은 여유가 생긴 그는 요즘 새로운 일을 찾았다. 2개월 전부터 경희의료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기도 하구요."

◇이남숙 포교사는 어린이들 앞에 서면 언제나 '천진보살'이고 싶다.

4~5살 꼬마 아이들부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까지, 매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의 일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로 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제대로 불법을 알고 가르치기 위해 매달 남양주시 화개선원에서 열리는 지유 스님의 참선법회에 참석하는 등 정진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自燈明法燈明)고 하셨잖습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널리 펴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4~5살 아이들부터 죽음을 앞둔 사람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는 이남숙 포교사에게 나이와 학벌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

신개발 玉 佛 (옥불)

천연 옥을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9인치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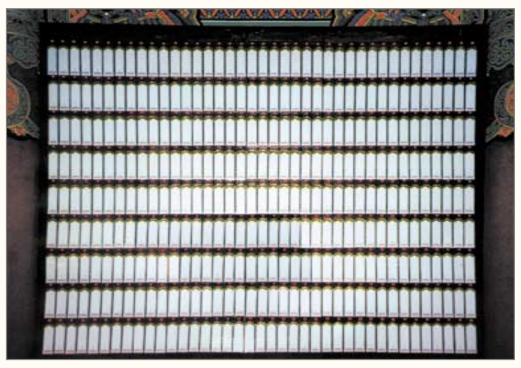
정심원 옥불의 좋은점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차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 법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6. 동불이나 특수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孝 · 정성 · 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크리스탈 - 연꽃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916-0310 핸드폰 011-724-0455